

답리작 딸기단지 조성지도

나 순 일

〈유성농업고등학교교사〉

— 우수 상 / 충청남도 —

1. 마을현황

여기 소개하고자 하는 마을은 대전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제1국도변에서 공주로 가는 교차점에 위치한 금강의 중류에 인접한 전형적인 평야지 마을이다.

이 마을앞 농경지는 금강이 형성될때 조성된 충적토로서, 물을 빼면 밭이요, 물을 대면 논이 되는 사질양토로 딸기재배에 알맞는 비옥한 토질로 되어있고 금강의 제방뚝이 건실하게 평야를 보호하고 있다. 360ha의 평야가 경지정리를 완료한 수리안전담을 이루고있어 벼농사나 답리작에 수자원이 풍부하고 평야 어느 구석이나 수송차량이 마음대로 출입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곡농업에만 종사하는 것 외에는 타경영 방법을 도입하려는 선구자가 없었다.

특히 이 지대는 경지면적이 남면에서는 제일 넓은 전천후 안전담 지대로 이 마을이 소유한 농경지는 103.3ha인데 그중 논이 84.7ha이고 밭이 18.6ha로써 경지면적의 대부분이 답작지대에 속해있다. 마을호당 평균소득은 80년도에 229만원으로 그간 중돈마을로 육성되어 벼농사와 함께 주요 소득원이었으나 79년도 양돈시세의 폭락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80년도 양돈시세의 회복으로 연간 1회만 번식자돈을 판매해도 평균 25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게 된 비교적 윤택한 마을이다.

(표) 농경지 및 농기계 보유현황

농경지(ha)			농 기 계(대)										
논	밭	계	경운기	이앙기	밭작기	물리관무기	트랙터	자동차	수동식	바인더	콤바인	양수기	다목적관리기
84.7	18.6	103.3	11	1	5	12	2	1	126	.	.	8	.

2. 기술지도의 동기

이 마을은 답리작 토질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술과 의욕이 없어 연간 벼농사 1모작을 할 뿐이어서 유사이래 속명적인 가난을 퇴치 하지 못하고 체념과 나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3년전부터 외지에서 딸기재배자 한두명이 들어와 벼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것을 보고, 관심있는 농가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80년도에는 28농가로 확대되어 재배하고 있으나 육묘기술의 미숙과 치명적인 병해로 실패하는 농가가 속출하여 확산재배하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마을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재배형태는 조숙재배로 계절적인 노동력부족에 박차붙 가할뿐만 아니라 주작인 수도작재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배기술의 보급과 재배형태의 전환으로 장차 마을 소득증가는 물론 정부의 식량 자급자족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딸기 주산단지가 10여년을 넘기지 못하고, 재배기술이 본 궤도에 오를때, 사양길에 들어 가게 되었었는데 충남의 경우 보령의 웅천지방과 논산의 채운지방 대덕의 유성지방 등이 좋은 예이며, 그 원인은 위황병의 만연 때문이었다. 이제 답리작 딸기재배 주산단지로 확산되려는 이 지역에 포장위생과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재배와 생산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본도단은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에 임하게 되었다.

3. 기술지도 방법

(1) 기술지도 개요

딸기재배를 하면 소득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섣뜻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기술의 미숙으로 실패를 염려해서였다. 딸기농사는 묘만 심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남이 하는 것을 걸음으로만 보고 듣고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딸기재배를 계속하기에 이르렀으니, 소득이 높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패가 속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였다. 재배기술에 대한 것을 타지역에 가서 물어 보아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 염려스러웠던 차 본단의 기술지도 결연 취지에 마을의 영향력 있는 재배가들의 호응과 기대는 자못 크기만 했다.

딸기재배에 대한 참고서적 한권을 소유한 농가도 없고 또한 구체적으로 서술한 참고서적도 국내 서점에서는 쉽게 구할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우선 딸기재배에 대한 기초적이고도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책자를 서둘러 만들어 전농가에 배부하였다. 농사는 묘대 반작이라는 말이 있으나 딸기농사는 묘농사가 성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이라도 하듯이 재배농가의 묘상태에 따라 소득의 격차가 다음 (표 4)와 같이 심하게 나타났다.

(표 2) 농가별 소득

농가수	1	8	7	3	5	2	비고
정형묘수익	2,500원	2,000	1,500	1,000	200	-	전매가격
10a당묘수익	750,000	660,000	450,000	300,000	60,000	-	

둘째, 잘살아 보겠다는 의욕의 부족이다. 농토가 많은 농가는 벼농사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별걱정이 없고, 영세농가와 비농가는 경험 없는 새로운 농사에 쉽사리 뛰어들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농촌의 타성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많은 토지를 소유하여 벼농사도 벅찬데 여기에도 딸기농사까지 어렵게 뫼하러 하느냐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탈피치 못하고 있다. 그래도 비농가와 영세농가들은 선작을 하여 벼농사 및 딸기 답리작을 하고 있다. 이중 영세농가인 신일균씨는 딸기농사는 한번도 한 경험이 없고 참외, 뽕매추를 답리작으로 대토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실통치가 않았다.

본인은 이 분을 이 마을 딸기재배의 선구자로

만들어 고도의 영농기술을 심고, 답리작 조숙재배에서 탈피치 못하는 이 지역을 대형비닐하우스재배로 전환하여 소득과 재배기술면에서 시범을 보여, 딸기 주산단지 조성의 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육묘의 중요성을 인식한 나머지 밭이 없는 신일균씨는 논에다 딸기묘농사를 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던 마을에 과감히 자기는 소유 36a에 딸기 묘주를 읊기고 묘농사를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저놈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묘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고, 그 결과 묘농사에 성공하여 묘만 판매 하더라도 평당 3,600 원의 조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기에 이르러 타농가의 선망이 되고 있다.

더구나 금년도는 기상조건과 타지역 주산단지의 위황병 만연으로 딸기묘 부족 사태를 빚어 이 마을로 딸기묘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 묘가 없어 판매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산단지 조성은 행정기관이나 지도기관에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좀처럼 조성되기가 어렵지만 가까운 이웃에서 어떤 작목이든 돈 벌었다는 소문만 나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서 주산단지가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치 못한다.

(2) 기술지도 활동과 주민의 호응

① 총가구수 136호에 인구 641명중 주민의 교육수준은 국졸이 265명, 무학이 346명으로 30명을 제외한 주민의 학력 수준이 낮고, 부락의 마을 집단도 분산되어 애항심과 협동심이 부족하여 금년도 5월에서야 40명의 마을회관이 준공되기에 이르렀다.

집단 기술지도는 주민의 호응도가 희박하여 정기적인 지도일에 현지에 나가도 주민이 별로 모이지 않아 실효가 적었다. 그 이유는 이른봄 눈이 녹으면서부터 딸기보온관리, 못자리, 딸기수확, 이앙수도작, 병충해방제등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주간에 현지에 나가면 마을은 텅 비었고, 야간에 나가면 피로에 젖어 앰프방송을 열심히 해도 마지못해 몇사람이 모여 좌담 형태로 기술지도를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비오는날

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② 고등학교 교사인 본인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에 전념을 하여야 하고 학교 시설원에 포장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문제가 되었다. 처음 몇번은 수업을 오전으로 바꾸어 끝내고 오후에 지도부락을 순회지도 하였다. 그러나 매주 조퇴를 하며 마을에 나가야 하자니 학교에 면목이 없어, 드디어는 퇴근하는 길에 현지 지도하고 대부분의 주말이 마을을 지도하는 날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마을앞까지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어 오토바이로 3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어 차편의 시간 제약은 받지 않았다.

처음엔 딸기 매매 상인으로 오인 받기도 하고, 재배기술의 개선을 설명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농민도 있어 한때는 회의적인 마음까지 들었으나, 그래도 “우리집 딸기밭좀 봐주세요요”하고 기술지도를 요청하는 농가가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용기를 갖고 퇴근길이나 주말이면 순회 지도를 하고 있다.

4. 주요 기술지도 내용

(1) 육묘

① 모주 선발 및 관리

딸기를 처음 시작하려는 농가는 수확직후 생산성 있는 포장에서 정확한 품종과 무병지의 모주를 선택하여 6월초순까지는 120×60cm의 거리로 옮겨 심는다. (자묘채취 60일전)

전용모주주 운영은 Virus Free묘(무균배양묘)를 도입하여 10월 중하순, 10a당 240주(2m×60cm)를 정식하고 익년에 꽃대 런너(Runner)등을 발생 즉시 제거하며, 6월초순부터 발생하는 런너를 노지용은 7월상순, 조숙재배용은 7월 중하순, 반촉성하우스용은 8월 중하순 부터 채묘 가식한다.

② 묘상준비

관수가 용이하고 재배포장이 가까운 곳으로 연작지나 건조하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 가식 3주전에 10a당 N. P. K. 10kg 이내로 기비를 넣고, 90~120cm×30cm 이랑을 만들고 반촉성은 본포 10a당 9,000~10,000본이 필요하므로 3a를, 노

지조속은 5,500~6,000본이 필요하므로 2a를 준비한다.

③ 채묘시기 및 우량묘

조숙재배용은 6월초에 런너를 발생시켜 7월 중순 채묘가식(18×18cm)하고, 대묘(40~50g)를 육성하여 전개엽 6~8매, 관부직경 1.5cm, 액아 2~3개를 발생시킨다.

하우스용은 7월초 런너를 발생시켜 8월중하순 채묘가식(15×15cm)하고, 중묘(20~25g)를 육성해서 전개엽 4~5매에 충실한 액아 1~2개를 목표로 하여 재배형에 알맞는 묘를 생산한다.

④ 채묘 및 식부방법

채묘 10일전 원모주를 제거하여 자묘의 활력을 촉진시키고 끝의 연약묘는 안쓰는 것이 좋다. 8월중순 채묘할때 조속용은 본엽 4매, 하우스용은 본엽 2.5매로 식재하며, 좋은 자묘의 조건은 앞자루가 짧고 관부가 굵으며 흰뿌리가 많은 것이다. 1번 및 끝자묘는 버리고 채묘하여, 포복지를 모주쪽으로 3cm 남기고 절단하여 아토닉(6000배액)과 톱신M(300~400배)액에 1~1.5시간 침지후 심는다. 심는 방법은 관부가 묻히지 않게 유의하고 즉시 충분한 관수를 하고 해가림(가리소)을 하여 시들지 않게 한다. 특히 밀폐삽을 하여 활착을 촉진시키면 가장 효과적이다. 폐삽이란 채묘 이식후 충분히 관수하고, 밀폐로 인한 곰팡이병 방제를 위한 살균제를 살포하며 비닐터널을 설치하고 해가림을 한다.

⑤ 자묘발의 관리

식부후 5~7일 지나면 해가림을 서서히 제거하고 요소를 맑게 회석(물 20ℓ 당 20g)해서 물주기를 겸하여 액비를 준다. 마른잎, 노화잎을 10일 간격으로 1장씩 제거하되, 초기는 3매 후기는 4매를 유지하여 관부를 굵게함과 동시에 액아 발달을 도와준다. 가식후 1개월 지나면 제 2차 자묘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10일 간격으로 디프유제 톱신, 다코닐, 영양제(하이포빅스)를 혼합 철저히 살포하며, 묘상에서 병충을 완전히 박멸한 후 정식을 해야 한다.

(2) 정 식

① 정식시기

대부분의 채자에 수록된 적기는 9월 하순경으로 되어 있으나 9월 하순은 정화방의 화아분화기 이므로, 이때에 정식하면 단근에 의한 정화방의 발달에 지장을 주어 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화아분화전 따라서 10~15일이나 답리작은 화아분화가 끝난 10월25일 전후가 정식 적기이고 늦어지면 근근 확보에 무리가 간다.

② 정식준비 및 방법

답리작은 이랑넓이 90cm, 고랑넓이 30cm, 이랑높이 30cm로 정지하여 2조식으로 정식하는 것이 배수에 편리하다. 정식 1~2주전에 비료를 전충시비 해야한다. 배수가 불량하거나 정식을 서두르고자 할 때는 정식후 양측에 알갱이 시비하여야 좋다. 계분은 썩히지 말고 충분히 퇴워서 사용하여야 비효도 좋고 다루기 좋으며 비료의 해가 없다.

③ 정식요령

재배형에 알맞은 기준묘를 골라 뿌리가 상하지 않게 채묘하고 정식이 늦어질수록 흙을 많이 붙이고 튼튼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한다. 묘가 직사광선을 받아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정식깊이는 관부가 약간 덮일 정도로 한다. 화경 출현 방향이 배수로쪽이 되도록 심어야 수확노력이 절감된다. 재식당시 화경 출현 방향을 확인하여 재식하기 어려우므로, 고랑쪽으로 관부가 약간 경사지게 식재하면 꽃대가 전부 배수로 쪽으로 쏟아지게 된다.

④ 본포의 시비량

10a당 N(질소) 20kg, P(인산) 17kg, K(칼리)

(표 3) 표준시비량 (10a당)

종 류	시비량	기 비	추 비	
			1 회	2 회
퇴 구 비	1,500kg	1,500kg	12(11月下)	12(12月中)
계 분	100kg	100kg		
유 안	24kg			
용 인	38kg	38kg		
초 목 회	130kg	130kg		
염 가	10kg			
혼합유박	60kg	60kg		

(표 4) 작형별 재식거리

작형구분	이랑넓이	관 수	포기사이	a당본수	비 고
숙 성	180cm	4~5관	25cm	900~110	2중피복가운
반숙성	150~180	3~4	25	700~800	2중피복가운
발숙성	120	2	20	780	2중피복
터 널	135	2	25	550	답리작 재배
노 지	120	2	25~30	550~600	

22kg을 기준으로 하여 유기물 위주로 시비하되 부족된 양은 단비등으로 환산 시용해야 한다. 딸기는 지력이 절대적이라 점을 유념하고 시비에 유의해야 한다.

(3) 정식후의 관리

① 하엽 및 런너제거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늪은잎, 마른잎, 병든 잎등의 제거로 병충의 잠복처를 없애고 액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하엽제거는 이른 봄 해빙후 실시하고 런너는 수확이 끝날때까지 수시로 제거하며, 액아는 충실한 것 2~3개 남기고 연약한 것은 제거한다.

② 토양멀칭 (Mulching)

후면에 돌입한 후(12월 10일경) P.E.(포리에치렌 필름: 0.03mm) 피복을 하고 그 위에 벗짚을 3cm로 덮는것이 가장 좋으나, 정식직후 P.E 필름으로 조기피복하면, 가을 개화 및 겨울 난동으로 조기개화해서 정화방이 냉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다음 해 봄 해빙 즉시 벗짚을 걷고 중경제조 및 고사엽등을 제거하며, 다시 P.E 필름으로 멀칭하면 새 잎이 돌아난다. 새잎이 P.E 필름을 쳐들고 올라오면 구멍만 뚫어놓고 온도조건이 적당할때 구멍을 확대하여 잎이 상하지 않게 끌어 낸다. 0.04mm의 소형 비닐터널을 설치하고 3월 하순까지는 온도를 높게(30℃)하며, 화방이 출현하면 환기에 유의하여 25℃ 이상으로 되지않게 조절하고 요소를 추비했을때 gas(가스) 장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비닐피복의 시기는 재배방식 및 보온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개 비닐피복 한후 개화까지 30일, 개화부터 성숙까지 45일이 소요되므로 하우스 반숙성재배는 충분한 방온자재시설이 없는 경우, 4월 중하순 출하 목표이면 역산 75일 하여 1월 하순~2월 상순경이 된다.

③ 제초

노동력을 줄여 생력재배 하려면 제초제를 사용해야 한다. 정식 1주일 후와 해빙후 손질한 후 1회 더 살포하면 가장 효과적이며, 약제가 가급적 딸기에 묻지않게 하되 사질토는 적게 점질토는 많게 (1cm 스며들게) 살포하고 회석배수를 지켜야 한다. 일반 잡초는 씨마진, 마세트 등으로, 뚝새풀이 3엽기 이전이면 구사가드(10a당 100g을 1000배)가 효과적이다.

④ 관수

정식후와 개화결실기 및 비대 전반기에 많은 물을 요구한다. 수확기에는 맑은날 0.5~1l의 물을 흡수 증산하므로 강우가 적당하면 관수가 필요 없으나, 이 기간은 대체로 건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하우스는 물론 비닐멀칭한 곳이라도 관수하되, 고랑만 물이 차도록 관수하고 고랑이 차면 즉시 배수해야 한다.

(4) 수확 및 판매

① 수확

답리작 조숙재배는 야간에 온도가 낮으면 피복을 계속하여 착색을 촉진시키고, 한낮의 수확은 햇볕이 강하여 상하기 쉬우므로 아침에 수확하되, 꽃받침을 잡고 과경쪽으로 움직여 수확하고, 수확시 얇은 용기를 2개 휴대하여 대과와 소과를 구별 수확하여야 선별 노력이 적게 든다.

② 판매

마을단위로 공동출하를 하여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다.

5. 문제점 및 대책

(1) 재배형태 (양식)

딸기를 답리작으로 조숙재배하게 되면 우선 수도작과의 경합으로 노동력 부족이 격심하게 되고 벼의 수량이 감소된다. 이 마을에서는 10월 15~25일까지 벼 수확을 끝냄과 동시에 딸기를 11월 초에 정식하여 6월 중순에 수확을 끝내고서 벼를 심는 관계로, 벼의 생육기간이 짧아져서 감수를 하게된다.

감수율은 6%로 조사되었는데, 10a당 벼의 수량을 440kg으로 보면 감수량 6%는 26.4kg

에 해당되고, 81년도 정부 매상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13원 (26.4kg×652원)이 된다. 이 손실은 딸기재배로 충분히 보상되지만 답리작 딸기재배는, 통일계통 중에서 수확이 빠른 품종으로 대치하고, 대형하우스재배로 전환하여야 벼재배의 안전 및 노동력의 분산과 딸기 소득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2) 우량묘의 확보

딸기를 답리작으로 할때는 1년차로 수확은 끝내게 됨으로 우량한 묘를 확보해야 한다. 이 마을은 밭이 적은데다 토박하고 물길마저 멀어 딸기묘 농사에 불리한 조건인 밭에서만 육묘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8월 하순경 채묘하여 육묘하기 때문에, 육묘기간이 30~40일 정도에 불과하여 생산성이 낮은 묘를 기르고 있다. 따라서 우량묘 확보를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밭과 논 일부에 Virus Free묘 (무균배양묘)를 도입하여 전용모주포로 재배해서, 7월 중순으로 채묘시기를 앞당겨 답리작 조숙재배로 적당한 대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치명적인 병해방지

집단 연작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병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포장위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답리작은 습기가 많은 토양으로 잣빛곰팡이병 및 치명적인 위황병이 우려되므로, 병든 것을 포장, 뚝수로 등에 방치하지 말고, 재배농가 모두가 합심하여 재배지 한쪽에 땅을 깊이 파놓고 발견되는대로 수거 매몰해서 이 지역의 병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제초노력

대부분 인력으로 제초하기 때문에 인력난 과 인건비가 많이 요구되므로, 제초제의 사용을 병행하여 제초에 소요되는 노력을 절감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한다면 보다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대부분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다.

(5) 확대재배

새로운 농사기술이 없던 농가는 재배 기술의 지도와 시범농가의 성공으로 재배의욕을 고취하여 스스로 참여토록 하고, 딸기 재배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나자 이 마을 뿐만 아니라 인

접마을까지 재배가 확대됨으로써 이 마을은 딸기재배 기술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6) 판매 및 품종대책

판매의 어려움을 손쉬운 상인에게 선매하고 있으나 그나마 작황이 좋아 이익이 있는 것만 사들이기 때문에 작황이 나쁜것은 수집차량에 위탁판매 하고 있다. 이것은 마을단위 공동출하로 판매비용과 노동력을 절약하며 중간상인의 이득을 방지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생과용 보교조생 품종은 수량과 품질에서 타품종 보다 월등하나 치명적인 위황병에 대한 저항성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저항성이 있고 답리작에서 수량이 안정된 Senga Sengana(생가생가나) 및 팔천대(八千代)를 위황병 이병포장에 보교조생 대치품종으로 재배하고, 가공공장과 계약재배하여 판매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수출신장에 이바지 해야겠다.

6. 실적 및 효과

(1) 년도별 딸기 소득 비교

(단위: 천원)

구분	년도	79	80	81	82	비 고
참 여 농 가	3호	12호	28호	60호	※82년도의동계는	예상수치임
재 배 면 적	80a	400a	1,200a	2,000a		
딸 기 조 수 익	2,400	12,000	54,000	120,000		
참 여 농 가 오 년 륜	800	1,000	1,928	2,000		

(2) 미백우주의 농업을 하던 마을이 딸기 답리작재배로 영세농가 및 비농가들도 딸기에서만 192만 8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3) 기술봉사단의 꾸준한 지도와 재배농가의 소득효과로 81년도 28재배농가에서 60농가로 확대되어 82년도의 마을 소득은 딸기에서만 1억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4) 답리작 조숙재배 형태에서 탈피하여 반축성하우스 재배로 재배형을 바꾸는 농가가 늘고 있어 소득증대는 물론, 수도작과의 경합인 노동력의 분산과 병의 적기 이양으로 다수확을 할 수 있다.

(5) 과거 주산단지(주산단지를 사양화 시킨 치명적인 위 황병의 지역 오염을 인식하고 병주를 철저히 수거 매몰하여 지역오염을 최대로 방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산단지의 유지가 가능하여졌다.

(6)재배기술중 묘농사가 다수확의 80%를 차지 함을 크게 인식하고 생산성 있는 우량묘를 확보 하게 되어 단위 면적당 소득이 배가 되고 있으며, 불량묘와 위황병 이병주는 아예 정식하지 않아 수확기에 가서 갈아치워 버리는 농가가 없어졌다.

7. 전 망

전문적인 딸기 재배기술 지도가 바탕이 되어 주민들의 의욕있는 참여로 주산단지가 확대되고 조숙재배에서 반축성재배로 전환되어 이 마을이 소유한 논과 인접마을이 소유한 360ha의 평야가 비닐하우스로 덮이는날, 딸기 답리작재배만으로도 연간 4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가난의 표상이었던 주거환경을 마을 자립으로 개선하여 원수산 양지바른 남쪽 언덕에 태양열 주택과 문화복지 시설을 건립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주 소득원을 벼농사만 생각하던 마을사람들이, 답리작 딸기재배로 좋은 묘를 한 포기라도 더 심으려고 하는것을 볼때 그동안 봉사활동의 보람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지도를 다짐하며 송담리 마을이 잘 사는 이상적인 복지농촌으로 바뀌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 앞으로 딸기재배에서 수확의 안정과 생산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계속 연구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1) 생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 현재 위탁판매 형식에서 경매입찰로 제도화 되어야 하고,

(2) 생산품 포장의 개선 : 현재 양은이나 플라스틱 그릇 포장 판매에서, 1kg들이 골판지 상자단위로 포장해서, 8개들이 플라스틱에 담아 수송할 수 있는 영농자재개발 보급이 필요하며,

(3) 안전다수확 할 수 있는 모주의 보급 : 조림묘목같이 Virus Free묘(무균배양묘)를 국가 육묘사업으로 전환 보급하여 생산에 안정을 기하고, 가공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을 정책적으로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